

작황 양호·출하량 확대…봄철 농산물값 안정되나

배추 중도매가 전년 대비 20.6%·대파 48.8%·참외 41.9% 하락
초대형 산불·초여름 이상기후 여파로 사과·배 가격은 강세 지속

최근 배추와 딸기 등 채소, 과일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부터 폭등했던 농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작황 여건이 개선되고, 봄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10kg·상품) 중·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만4920원으로, 전월과 전년 대비 각각 11.4%, 20.6% 하락했다.

배추가격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배추 작황 부진 및 올해 초 정부 비축물량 부족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평년보다는 20%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다행히 이달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주요 식자재로 활용되는 채소류 가격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당근(상품·20kg)은 도매가는 5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24.5%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39.4% 낮은 수준으로, 농산물 물가가 치솟기 직전인 2022년 수준과 비슷하게 안정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격대란’을 일으켰던 대파(상품·1kg) 역시 겨울 대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8.8% 저렴한 1240원을 기록했다.

또 현재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무(상품·20kg) 도매가는 전년보다 34.8% 높긴 하지만, 다음달 중순께 봄무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폭 뛰었던 과일가격도 본격 출하를 앞둔 참외와 수박 등 제철 과일을 중심으로 양호한 작황을 보이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참외(10kg) 중·도매가격은 5만6660원으로 전년과 전월 대비 각각 41.9%, 35.0% 하락했는데, 전년보다 풍토병 피해가 줄고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5월 출하를 앞둔 수박도 1개당 1년전보다 34.4% 저렴한 2만520원을 기록 중이다. 수박 역시 지난해 초 장기간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생장기(1~3월) 일조량 부족, 냉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으나, 올해는 성장이 양호해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다.



봄철 출하량이 늘고 작황이 좋아지며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참외 등 과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다만 2년 연속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고공행진했던 사과와 배는 올 하반기에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 여파로 인한 사과 출

하량 감소, 7~9월 태풍 및 폭우, 고온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사과(상품·후지)는 10kg 당 8만9240원으로 전월 대비 6.0%, 배(상품·신고) 역시 15kg 당

2.0% 오른 9만5120원으로 집계됐다. 사과와 배 모두 전년보다는 13~27%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50~72%가량 높은 상황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키울수록 빛” 한우 사육 줄고…돼지·닭 늘었다

1분기 전남 한·육우 농가 5.7% 사육 마릿수 4.4% 감소

올 1분기 전남지역의 한·육우 농가와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줄고, 돼지와 닭 농가 및 사육 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농가는 사료비와 인건비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보이면서 규모를 줄인 반면, 돼지와 닭은 지난달 전남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구제역 여파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남지역 한·육우 농장은 1만4732호로 전년 동기(1만5615호) 883호(5.7%) 감소했다. 농장수 감소에 따라 사육 마릿

수 역시 63만436마리에서 60만2823마리로 2만7613마리(4.4%) 줄었다.

2022년부터 4년째 한우 농장의 생산비는 증가하고 한우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한우 생산자들 사이에선 “사육할수록 빛만 늘어났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한우 사육 규모를 줄이는 농가가 늘어난 데다, 가임암소는 지속 감소하는데 최근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체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 한우를 제외한 돼지와 닭 등 주요 축산 농장의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돼지 농장들의 사육 마릿수는 올 1분기 기준 118만3313마리로 전년 동기(116만7033마리)보다 1만6280마리(1.4%) 늘었다. 충남(-6.2%), 전북(-4.6%), 경기(-1.7%) 등 비교적 돼지 사육 규모가 큰 지역에서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305가구에서 322가구로 17가구(5.6%) 증가했고, 사육 마릿수도 2124만6084마리에서 2345만4074마리로 220만7990마리(10.4%) 폭증했다.

다만 올 2분기 전남지역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돼지는 감소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월 22일부터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여파가 2분기 조사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선임대-후매도’ 농지 구입 청년 농업인 모집

농어촌공사 5월 13일까지 신청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 희망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우선 매입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최장 3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조건을 충족한 청년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리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순위는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 농업인,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 농업인, 소유 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 농업인, 소유 농지가 0.5ha를 초과하는 청년 농업인 순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신청은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전국 공사 지사, 농지은행 상담창구,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서창농협, 조합원에 채소 육묘 무상 지원

고추·오이·가지 등 1인당 49주씩

서창농협이 ‘채소 육묘 무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모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오는 5월 2일 서창농협에서 일반고추 30주, 청양고추 5주, 오이고추 5주, 오이·가지·호박 각 3주씩 모두 5종류의 모종을 준비, 신청한 조합원

1450여명에게 1인당 49주씩 무상으로 전달한다.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추가로 모종이 필요한 조합원에게는 고품질의 모종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실질적인 영농비 절감 효과를 높였다.

서창농협 관계자는 “소규모 영농 조합원은 자가 소비용 육묘 부담을 줄이고 중·대규모 영농 조합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모종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우 반값…농식품부 ‘소프라이즈’ 개최

대형마트 3사·농협 하나로마트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우 할인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

경제지주와 함께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품목은 한우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

류이고, 등심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 등심은 100g에 4530~5640원이고 양지는 3890~4260원, 불고기·국거리는 2750~2950원이다.

행사 매장과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